



세계별 양

세 계

맥도널드 “닭도 인도적 방법으로 죽이자”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을 갖고 있는 맥도널드사가 자사의 닭고기 공급업자들에게 보다 인도적인 방법으로 닭을 도축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널드사 대변인은 가스를 이용한 닭 도축 방법을 연구중이며 이미 유럽지역의 일부 공급 업체들은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동물 보호단체들은 닭고기 공급 업체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컨베이어 라인에 닭을 매달아 가슴 부위를 자르는 방법을 비인도적이라고 비난해왔으며, 이들 보호단체는 엄청난 닭고기를 쓰고 있는 맥도널드사가 닭고기 도축방법을 바꾼다면 다른 도계장들도 그 방법에 따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맥도널드 체인은 한국, 중국을 비롯, 전세계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번창해 하루 팔리는 닭고기 음식만도 상상을 넘을만큼 엄청나며, 맥도널드 가게에 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양한 닭요리 관련 음식을 접할 수 있다.(YTN)

계란이 왜 전자레인지에서 폭발할까?

최근의 World Poultry지에서는 왜 계란이 전자레인지에서 폭발하는 것인가에 대해 일반인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다. 같은 열로 서서히 열을 가할 때 물에서 계란을 삶으면 터지지 않는데 전자레인지에서 서서히 열을 가하면 폭발하게 되는 것에 대한 원리를 물어온 것으로, 전자레인지의 열은 본래 내용물에 있는 물을 매개체로 열을 전달하여 음식을 데우거나 익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계란의 경우는 흰자와 노른자 등 서로 다른 내용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문제는 전자레인지의 열이 가해지면서 계란내의 온도가 100℃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계란안의 온도가 100℃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물과 함께 흰자에 함유된 철장알부민 등이 요동을 치면서 난각강도보다 압력이 높아져 폭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계란내의 온도를 10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을 해 간다면 폭발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책은 언급하고 있다.(WP)

쿠 바

미국으로부터의 닭고기 수입 전면 허용

쿠바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지난해 2월 24일부터 금수조치를 취해오던 것을 지난해 12월 22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쿠바는 그동안 자국내 양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6개국으로부터의 가금육수입을 철저히 제한해 왔으며, 미국으로부터는 지난 2월 20개 주로부터의 가금육수입을 금지해 오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수입을 허용해왔다. 수입이 허용됨으로써 미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주춤했던 수출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수출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WATT)

중 국

동남아 지진해일(쓰나미) 피해지역에 닭고기 공급

지난해 말 지진해일(쓰나미)로 큰 피해를 가져온 동남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스리랑카에 소고기, 양고기 등 축산물이 구호물자로 지급이 되었으며, 특히 닭고기는 레토르트 식품으로 캔에 포장되어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중국은 음식, 텐트, 담요 및 현금 등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및 몰디브 등에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피해로 UN과 UNICEF 등은 물자 및 식품 공급 프로젝트를 세워 지진해일피해를 입은 나라들을 돕는데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WATT)

베트남

종계수입으로 활력 찾아

베트남이 지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어오는 가운데 지난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으로부터 종계 10만수를 수입해 오면서 양계산업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농업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가 언급하였다. 이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수입을 늘릴 계획이며, 현재 종계농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2개의 종계농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생산이 시작되면서 활기를 찾고 있으며, 양계산업 회복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WP)

말레이시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완전 퇴치 선언

말레이시아가 지난달 6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완전히 퇴치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농림부 관계자는 이웃나라들이 아직 조류독감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며 지속적인 경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태국 등 다른 조류독감 발생국에서 생산되는 닭과 오리 및 계란 등의 수입 금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켈란탄주(州) 관내의 가금류 이동은 허용되었으나 가금류 수출은 수의검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8월 14일 아시아지역에서는 가장 늦게 발생하기도 했다.(WP)